

대중회 경영개선 위해 사무총장직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제 1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집약

제 1차 상임위원회가 2018년 6월 19일 11시 서울역그릴에서 개최되었다. 권해욱 회장, 권영의 수석부회장, 권영성 상임부회장, 권영길, 권태호, 권광택, 권오신, 권영하, 권태복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권해욱 회장은 모두 인사말에서 행주대접제를 국가행사로 경상하는 문제는 현재 3천 400여명을 서명 받았는데 앞으로 최소 1만 명은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정보활성화 방안으로 회비, 광고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보급을 유료화 하고 활성화하여 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박물관 문제는 다행히 안동시장에 권영세 시장이 당선되어 앞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기로회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좋은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영한 편집부장은 정보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보발행부수, 발송 부수, 잔량 부수를 자세하게 설명하며 하반기에는 개인별로 지로용지를 발행해서 구독료를 수납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권율도원수 행주대접제를 국가행



사로 격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현황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보고했다. 권오운 사무총장은 정릉 기로회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집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들은 대중회 경영문제에 대해서 정관에는 부회장이 50명 내외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101명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있고 총회 때 결산서를 보니 이중 50% 밖에 수금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다.

광고, 회비 등 수입원은 뻔한 데 매월 1500여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를 해

결한 만한 경영개선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또 지난 전철을 안 밝을 대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권해욱 회장은 경영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매월 1500여만원이 지출되는데 수입원이 없어서 심각한 문제다. 그 중 인건비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때는 총장은 명예직으로 수행했다.

현재 부채 3억8천7백만원, 건물보증금 1억4천2백만원에 대해 총장직을 명예직으로 영입해서 무보수로 하고 종보 판매, 광고 받고 해서 3년 이내에 건물보증금이라도 확

보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려중이다.

권영의 수석부회장은 저 또한 무보수로 6년 동안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무총장직을 수행했다. 지난 1년 동안 회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데 자칫 잘못하다 지난 전철을 밝을 우려가 있어서 개선하자라는 것이다. 매월 1500여만원이 나가는데 줄일 데가 없는 것이 문제다 라고 말했다.

또 종보 문제에 대해 제기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들은 독자들에게 신문이 왜 안 팔리느냐?

하면 신문 내용을 어떻게 하는가 가장 중요하다. 신문을 좋게 만들고 나서 구독 관측은 막막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편집국장 체제로 해야 한다. 이것은 경영방침으로 정해야 한다. 신문지 용지도 재생용지 쓰지 말고 좀 좋은 것으로 쓰고 해서 뭔가 만들어 놓고 독자에게 읽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들은 홈페이지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장만 바꿔 놓고 1년이 넘었는데도 부회장 등은 바뀐 게 없이 그대로다. 총회 진행도 어설피다. 대회에 맞게 매끄럽게 가야 한다. 대중회는 100만 족친의 구심체다. 현관 수입을 누가 하는지 회장이 알아야 한다. 수입 정하는 것은 대중회에서 해야 한다. 기로회는 앞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몇 사람만 참여하면 안 된다 등등 상임위원들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감론율박의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는 대중회가 발전하는 데 보다 더 발전적이고 보다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되도록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회의였다.

社告

- 명예직 사무총장을 모십니다.
- 계약직 : 업무부장(종보관리 및 광고 업무)

안동권씨 대중회에서는 대중회 경영개선을 위해 유급제 사무총장직을 폐지하고 명예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상기 두 분은 약간의 거마비를 지급하되 정치력이 있는 지자체 장 또는 지자체 의원 출신이나 공직자 출신인자를 모시고자 합니다.

특히 권문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향후 정치적인 뜻을 가진 훌륭한 인물을 찾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서류 : 이력서 1통(사진 첨부)
- 연락처(안동권씨 대중회) : 전화번호 : 02-2695~2483~4 FAX : 02-2695~2485
- 이메일 : andongkwonmun@hanmail.net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2층)

◎ 인사발령

- 편집부장 권영한 편집국장 승진
- 총무부장 권영규 사무총장 직무대행(사무총장 선임 시 까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안동권씨 대중회장

7월 임원 선임 및 회비 납부 내역

- 임원 선임
 - *고문 위촉
권태인(사업인), 권영목(전 고문)
 - *상임 위원 선임
권오을, 권경석, 권영길, 권태망 (전 국회의원)
권인탐(정조공파총회장)
 - *부회장 선임
권병근(전 합천축협조합장)
권오한(제주 연동순복음교회 목사)
권오실(전 합천교육장)
 - 회비 납부
 - *권재혁(고문) : 1,000,000원
 - <부회장 회비>
권영목(전 합천농협조합장) : 1,000,000원
권오실(전 합천교육장) : 500,000원
 - <총무위원 회비>
권용호(포항) : 200,000원
- 합계 : 2,700,000원

안동권씨대중회

안동권씨여 함께 멀리 가자

복소리 울려 퍼지고
진소리 쩍하게 다가오자
축복의 햇살이 대지를 일깨운다.

경향각지에 들꽃처럼 흩어져 살던 우리 족친이여
오늘 우리는
새 꽃밭을 일구었다.

나눔과 배려의 마당
화합과 결속의 손길

여기서 누리는
핏줄과 사랑의 이름으로
천 년 혈족의 맥박을 느껴노라.

더 이상 뜨거울 수 없는 열정으로
더 이상 진할 수 없는 피로써
푸른 별의 큰 산맥을 이루고 긴 강으로 흘렀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처럼
두 손을 꼭 잡으소서
따뜻한 정이 낙동강처럼 흐르지 않는가.

세상을 향하여 응지를 펴라, '안동권문'이여!
영원을 향하여 그 뿌리 더 깊이 내리고
무한을 향하여 그 향기 더 멀리 흩날라.

혼자서는 빨리 가지만
함께 갈 때 멀리 갈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늘 함께했다.
핏줄은 하나지만

그 하나가 큰 뫼맥으로 흐른다.
씨앗은 하나지만
그 하나가 백만천만의 열매를 맺나니...

-오, 올곧게 '새 꽃을 잉태한 씨앗'이여,
안동권씨 족친이여 더욱 강건하소서,
안동권씨 대중회여 영원하라!

새롭게 거듭나
그 향기
은 누리에 진동하여라.....

안동권씨 제주자치도 지역종친회 발기인 대회

안동권씨 제주자치도 지역종친회를 창립하고자 합니다.

발기인 공동대표



권오한목사
창립준비위원장
중앙종친회부회장
연동복음교회목사



권인탐 회장
오대중합상사



권영구 목사
거자씨선교회이사



권형희교수
국제대학교겸임교수



권영복
(주) 내소날건업 회장



권희정
전중앙종친회부회장
(학술농산대표)



권창희 교수
(새한국스마트시티학회회장)

족친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 및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동권씨 제주자치도 지역종친회 창립준비위원장 권오한 목사

- 일 시 : 2018. 7. 31.(화) 오후 5시
- 장 소 : 하워드 존슨 제주호텔 연동 3층 다운홀
- 주 소 : 제주시 삼무로 57번 ☎ 064-747-6682
- 연락처 : 권오한 010-7171-1747 / 권영구 010-5607-9979